

# 제주 역사와 문학

김영화\*

## 차 례

1. 역사를 보는 눈
2. 『변방에 우짖는 새』
3. 『바람타는 섬』
4. 민주주의와 반외세주의

## 1. 역사를 보는 눈

제주 역사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김태능 등 주로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 역사는 아직까지도 단편적인 것만 밝혀졌을 뿐, 그 전모를 밝히지는 못한 상태다.

제주의 역사를 소재로 해서 작품을 쓸 때 기존의 역사서에 의하거나, 연구 논문에 의존해서 작품을 쓰기는 쉽지 않다.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청취하면서 작품을 집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작가는 작가의 눈과 역사가의 눈을 동시에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현기영의 장편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1983)와 『바람타는 섬』(1989)은 작가가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들어서 집필한 작품이다. 이 두 소설의

---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재가 된 제주의 역사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전에 의해 단편적인 사실만이 전해져 왔거나 서로 다른 시각에서 씌어진 단편적인 글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작가가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청취한 것을 바탕으로 씌어진 작품인 만큼 작가는 역사가를 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이 소설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의 시각과 관점이 드러나 있어 현기영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2. 『변방에 우짖는 새』

이 작품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방성칠란>(1898)과 <이재수란>(1901)을 다룬 소설이다.

두 민란은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보면 큰 사건이지만, 나라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작은 사건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났고, 역사의 기록에서도 제외되었다. 제주도에 살면서 향토사를 연구하는 향토사가나 천주교 관계의 인사들에 의한 단편적인 기록이 있을 뿐, 마을 촌로들의 구전에 의해 더 많이 전해오는 사건이다. 그것을 소설로 형상화하여 전국 의 독자들에게 널리 알린 것이 현기영이다.

그렇다면 이 두 민란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사건이다. 민란의 앞장에 선 장두의 의도와 사상적 배경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고, 이재수란의 경우는 천주교측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이 두 민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란에 가담한 대다수의 농민과 어민 등 직접 생산에 종사하고, 세금을 내는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들이 왜 민란에 가담하게 되었는가. 민란을 주도한 장두들의 선동에 흔들린 점도 없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의 삶에 유형무형으로 가해지는 억압과 수탈에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가담한 것이다.

제주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게다가 흉년이 들면 한 본토(육지부)에서 식량을 수송해 와야 했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운송수단이 빈약했던 옛날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 그럴 때 기대는 곳이 관(정부)이다.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구휼(救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부임해 온 관리나 지방의 아전들은 백성을 구휼(救恤)하기보다 탐학에 빠지는 경우가 흔했고, 백성들로부터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관에 대한 불신과 반항이 농민이나 어민들 사이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다.

더 괴로운 것은 나라에 진상하는 토산물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물론 나라 진상은 백성된 도리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막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진상수가 정식대로만 지켜진다면 오죽 좋으랴만, 나라에서 열을 징구하면 스물, 서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진상물이었다. (중략) 진상을 벌미잡아 위로는 사또 영감부터 저 아래 육방관속에 이르기까지 토색질을 일삼았으니, 섬 백성들은 허구헌날 굶힌 허리를 펼 겨를이 없었다. 중산촌에서는 말을 키워 공마하고, 굴을 가꾸어 진상하고, 진시황이 이 섬에서 찾다 못찾은 불로초 외에 향심, 향부자, 안식향 따위 갖은 약재를 다 구해야 할 뿐더러, 백락, 표고 버섯, 돛자리, 말총갓, 노루 사슴의 육포에다 별미라는 사슴 헛바닥과 꼬리까지 공헌해야 했다.

해촌에 비하면 중산촌은 그래도 부역이 덜한 편이었다. 해촌의 포작 진상은 수량이 월등이 많아 포작인(어부)들은 일년 열두 달 바닷 속 열명길을 들락날락 자막질하여야 했다. 노적가리만큼 진상 꾸러미를 만들어 전복, 미역, 청각, 우뭇가사리, 산호, 대모외에 해중 귀물인 진주와 앵무조개를 찾아 겨울철에도 벗은 몸으로 바다에 들곤 하였다. (중략) 남정네 근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마누라와 딸자식까지 별거벗겨 물질을 시키건만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하여 옥살이를 하고, 불기 맞기를 선달 그믐날 흰떡맛듯 하였다.(15~16쪽)

이 인용문은 특정한 시대의 제주도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늘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허구인 소설인 만큼 기록에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현기영이 생각하는 조선시대 제주민의 삶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나라에서 징구(徵求)하는 세금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제주 백성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늘 민감했고, 그것이 가혹해지면 민란이 일어날 소지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 1) 1898년의 민란

흔히 <방성칠란>이라고 불리는 1898년의 민란은 세금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다음 인용문은 그것을 뒷받침한다.

삼읍(三邑)에 은밀히 통문이 돌고 성문과 성벽에 목사의 탐학(貪虐)을 성토하는 익명의 괴서가 나붙어 민심은 크게 동요되었다. 화전민촌이 많은 대정고을이 그 중 심했다. 통문을 삼읍에 돌린 것도 대정의 화전민들이라고 했다. 몇 달 전부터 화전세 장전세(場田稅) 호포세(戶布稅)를 정수(定數)보다 훨씬 넘게 남징하고, 새 법에 따라 백성이 주관하게 된 사환곡(社還穀)을 목사가 제 마음대로 농단한다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더니 기어코 일이 벌어질 모양이었다. 화전은 한라산 기슭 가시덤불 우거진 땅을 개간한 것이고, 장전은 그 밑에 펼쳐진 넓은 목장 구석구석에 새 뿌리, 억새 뿌리를 일궈 만든 밭인데, 중산간 마을에 이런 밭을 안 가진 집이 드물었다.

멀지 않아 삼읍 만인이 주성의 관덕정 마당에 모여 들어 동헌에 소장을 올린다는 소문에 목사는 주야로 좌불안석이었다. 삼읍 군수들에게 신칙하여 백성들이 입성(入城) 못하게 엄중히 단속하게 하고 방리(坊里)마다 효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백방으로 엄금했으나 일단 들끓기 시작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세가 아니었다. (중략)

음력 1월 18일, 마침내 대정 화전민 수백 명이 주성에 입성하여 소장을 올렸다. 소두(疎頭)는 방성칠이라는 팔십 난 노인이었다. (50~51쪽)

향토사가인 홍순만에 의하면<sup>1)</sup> 이 민란은 대정의 화전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 화전민들은 대부분 한본토(육지)에서 들어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1) 홍순만, "최근세사", 『제주도지』제1권(1993.2), 1011~1025쪽.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화전민을 중심으로 농민 수백 명이 목사가 있는 제주의 동헌으로 몰려 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소청 내용은 첫째, 화전세와 마장세(馬場稅)를 지나치게 걷고 있고, 둘째, 호포(戶布:戶別稅)의 과징이 있으며, 셋째, 사환(社還:還穀) 제도에 있어서 관리들의 농간이 있으니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세금의 과징과 관리들의 농간이 백성들로 하여금 민란에 동조케 된 것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sup>2)</sup>에 의하면 방성칠은 80여세가 아니라 50세이고, 방성칠을 비롯한 남학당 세력과 일부의 유배인, 다수의 대정 지역의 화전민들이 이 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현기영의 시각과 관점도 비슷하다. 다만 방성칠의 역할이나 연령 등에 다소 사실과 달라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의 시각에서 이 민란을 바라보고 있어 그의 다른 소설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 2) 1901년의 민란

흔히 <이재수란> 또는 <천주교란><sup>3)</sup>이라고 불려지는 1901년의 민란은 그 성격이 복잡하다. 그러나 농어민들이 민란에 참가하게 된 것은 세금의 과징과 관리들의 농간, 그리고 봉세관의 위임으로 조세를 담당하던 천주교도들의 작폐에 있다.

이 고장에도 작년 말부터 왕명을 받은 봉세관 강봉헌이 입도하여 호포세 장전세 화전세 어장세 신세 등 각종 세를 일일이 조사하여 집세하고 있었다. 세액은 물가 오른 핑계로 정수보다 두 배 가까이 올려 받았으니 고깃배 대여섯 척 될까말까 하는 작은 포구 하나에 어망세가 무려 팔백냥이었다. 강봉헌은 또 한편으로 공토와 관청 건물을 민간에 팔았다. 본래 돈토가 없는 고장이라 공토라면 꿀을 가워 나라에 진상하던 과원과 말을 길러 상납하던 한라산 주위의 드넓은 목장이었다. 관청 건물과 십여 군데 과원은 그럭저럭 팔

2) 박찬식,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의 주도세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 『탐라문화』 제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2), 305~340쪽.

3) 홍순만, 앞 논문, 1017쪽.

려 나갔지만, 밭도 아닌 잡초만 무성한 들판을 살 작자는 없었다. 그래서 열두 군데 목장은 마을마다 갈라 맡겨 목장세를 받아냈으니 없던 세가 하나 더 늘었다. 갑오 이후 목장이 폐지되자 말 진상 대신 돈으로 대납해 왔는데, 그 공마대전(貢馬代錢) 마련도 힘겨운 터에 목장세가 가설(加設)된 것이다. 그리고 목장 안에 토질이 쓸 만한 곳은 예로부터 장전(場田)이라 하여 꼬박 꼬박 세금 물고 갈아 먹고 있었으니, 이 장전세까지 치면 목장 하나 때문에 세금이 세 가지라, 일물삼세(一物三稅)가 바로 그것이었다. 게다가 소출이 넉넉한 장전일수록 공토라고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것이었다. 중산층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 해촌에서도 삼십리 길을 걸어다니며 장전을 일귀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고생고생하며 띠 뿌리, 역새 뿌리, 짚레 뿌리를 캐고, 말똥 소똥으로 지력을 키워 놓았건만, 결국 죽 쑤어 개 바라지한 꼴이 되어 버린 셈이었다.

가혹한 징세로 난리가 일어난 지 이 년도 못 되어 세폐(稅弊)가 다시 머리를 든 것이었다. 봉세관은 재작년 난리를 모를 리 없건만, 세를 호되게 매기고 가혹하게 징수하는 데, 조금도 기탄함이 없었다. 너희들이 감히 왕명을 거역할 것이냐, 징세를 빙자하여 사육을 채운 수령 아전을 대항해서 소란을 피웠을 망정, 감히 왕명을 받든 봉명사신(奉命使臣)을 어찌하진 못하리라. 오랜 흉년과 난리로 국고가 피폐하여 나라 기틀이 누란지경에 처했는데 백성된 도리로서 세가 좀 과중하다고 어찌 거납(拒納)할 것이냐 하는 태도였다. (161~162쪽)

인용이 다소 길어졌지만 민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제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허구인 소설인 만큼 과장된 면도 있을 것이고, 사실과 다른 점도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큰 줄거리는 이 인용문 속에 자세하게 드러나 있고, 그것이 민란을 야기케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세금의 남징에 대한 불만이 관에 향하지 않고, 왜 천주교도들에게 향했을까. 이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복잡한 상황이기도 하다. 현기영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삼읍의 공토 화전 장전 포구 염전을 일일이 조사하고 징세하려면 마름과 짐세 검색이 선 명쯤 필요했는데, 그 대부분을 성교 신자들로 메꾸고 있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장감찰 최선달 외에는 신입신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

는데 어제 불과 몇 달 사이에 신자가 백 명 가까이 늘어났으며, 또 어떻게 봉세관의 마름을 맡게 되었는지 그 사연인즉 이리했다. (중략)

활동적인 구신부를 맞이하자 교당측은 아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교리 해설만으로는 도무지 신자를 모을 수 없음을 깨달은 두 신부는 이때부터 전교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우선 최선달과 평소에 친분이 있는 봉세관 강본헌과 손을 잡아 봉세관의 마름으로 교인을 쓰도록 한 것인데, 마름이 되면 제 집 몫의 세금은 모두 면제받는 큰 혜택이 있었다. (중략) 이리하여 가난한 이 교당 주민들 중에는 봉세관의 마름이 되어 과중한 세금을 탕감받는 한편 억울하게 당하는 관재를 막아 보려고 교인이 되는 자가 속속 늘어갔다. (162~163쪽)

농어민들이 관에 대한 불만이 교인들에게 향한 것은 세금 등을 교인들이 걷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그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교인들과 농어민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일어난 것은 자연스런 것이기도 하다.

농어민들과 교인들의 갈등은 종교적인 것도 있다. 농어민들은 오랜 기간 유가적 가치관과 무속신앙 속에 살아 왔다. 천주교의 교리는 유가적인 가치관이거나 무속신앙과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무당들은 신자들을 빼앗겨 생활에도 지장이 있었다. 따라서 대다수 제주도민과 천주교신자들 사이에는 갈등과 불화가 내재해 있어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향교의 장의(掌議)였던 오신락이 천주교도들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일어나자, 정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천주교도들을 성토했기 시작한 것은 유교와 천주교와의 갈등의 한 양상이며, 교인들이 할망당의 신목(神木)을 베어 넘긴 것은 천주교와 무속 신앙이 갈등을 빚게 되는 요인이다.

제주 문화는 남유여무(男儒女巫)적 요소가 있다.<sup>4)</sup> 말을 바꾸면 남자들은 유가적 세계에, 여자들은 무속신앙 속에 살아 왔다. 그것이 천주교가 들어 오면서 문화적 충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당시 대다수 제주도민과 천주교도들 사이

4) 현용준, "제주도 전통문화예술 개관", 『제주문화예술백서』(예총제주도지회, 1988.2), 20쪽.

에 충들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민란의 주도세력은 대정의 상무사(商務社) 조직원들이다. 현기영은 이 소설에서 상무사가 조직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리하여 단 열흘만에 대정 고을 유생들을 근간으로 하여 자위단이 결성되었으니, 이름하여 상무사라 하였다. 애초에는 교인의 학대를 방어하기 위한 비밀 결사답게 <象武社>로 할 요량이었으나, 채군수의 충고를 받아들여 <商務社>로 바꾸었다. <상무사>란 여럿이 모여 영리 사업을 벌이는 회사라는 뜻이었다. 회사라면 이 섬에서 상무사가 최초인 셈인데, 말이 좋아 신식으로 회사라고 한 것 뿐, 실은 게 모임이나 다를 바 없었다. 어쨌거나 비밀히 사람을 모으다간 금방 교인들에게 염탐 들어가 덜미 잡힐 공산이 크므로 아예 영리를 꾀하는 회사로 둔갑시켜 공공연히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상책이었다. (212쪽)

현기영은 이 소설에서 상무사의 조직과 활동을 교인들의 학대에 대한 방어라고 보고 있다. 향토사가인 홍순만의 견해도 비슷하다.

대정군내의 유지들은 1901년 4월 초 오리(汚吏)와 불량 교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항할 자위집단으로 상무사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에는 당시 대정 군수로 있던 채구석을 추대했고, (중략) 상무사원들은 봉세관의 토색과 남징 행위에 대하여는 민중 앞에서 공공연히 그 비행과 불법을 폭로 규탄하였으며, 교도들의 비행과 폭력에 대하여도 완력으로 상대하여 굽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연 이 두 세력 간에는 잦은 마찰과 분쟁을 야기하게 되었다.<sup>5)</sup>

그러나 이 조직의 상층부에 군수로 있던 채구석, 향장을 지낸 오대현(오을길), 전라도 영암에서 제주로 건너 온 마찬삼, 채 군수 밑에서 일을 보던 이재수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세금의 남징 때문에 시달린 사람들인 농어민과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특별히 천주교도들에게 시달린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 민란의 앞장에 섰을까.

박찬식에 의하면<sup>6)</sup> 상무사는 “원래 보부상 조직으로서 관권과 밀착된 어용

5) 홍순만, 앞 논문, 1018쪽.

6) 박찬식, 앞 논문, 311쪽.



조직이었으나, 제주도에서는 그 조직 형태를 빌어서 조세징수권, 상권 등을 장악하려는 경제적 이익단체”라고 보고 있다. 김옥회<sup>7)</sup>도 상무사를 “경제적 이익단체”라고 보고 있다.

상무사가 단순히 오리와 교폐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되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봉세관의 출현과 그에게 협조한 천주교도들의 활동은 상무사의 중심 세력인 지방 관리나 토호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침해했을 것이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 민란은 ① 봉세관의 작폐, ② 봉세관을 도운 천주교도들에 대한 반감, ③ 유가적 가치관과 천주교와의 마찰, ④ 무속신앙과 천주교와의 충돌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 조세징수권과 상권을 둘러싸고 천주교도들과 갈등을 벌인 상무사원들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순박한 농어민들은 상무사원들의 숨겨진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선동에 넘어가 회생을 당해야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여기서 현기영은 하나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것은 제주도민들, 그 가운데서도 기층민중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점이다. 그 점에서 그는 민중주의자요, 반외세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두 민란 당시 조천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양반 유립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제주 독자들이 서로 상반되는 반응을 보인 것은 그 때문이다.

### 3. 『바람타는 섬』

이 소설은 1932년 1월 구좌읍 하도, 세화 잠녀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잠녀들의 생존 권 및 항일 운동을 다룬 작품이다.

이 운동이 일어날 무렵 잠녀들의 삶과 소망은 어떤 것일까.

“어허, 시절 좋다. 목장의 목은 풀 속잎 나고, 갯가의 물빛, 파랫빛 고와지

7) 김옥회, 『제주도신속년교란사』(천주교제주교구, 1980), 51쪽.

고, 동백꽃, 복숭아꽃 만발한 이월이로구나, 흰구름 싸여 오시는가, 바람등 타고 오시는가. 영등할마님, 제주 산천 산 구경, 물 구경, 꽃 구경 오시는데 어서 바빠 청해 부르라. 오늘이 신미년 영등 이월 열 사흘날, 어느 고을 백성이 이 축원을 여쭙느냐 하면, 제주섬 동끝 구좌면 세화리 구차한 잠녀 백성들이 되옵네다. 연유 말씀 여쭙기는 다름 아니라 영등할마님 제주 산천 산 구경 물 구경 꽃 구경 오시는데, 물질하는 세화리 잠녀들, 모두 불쌍한 할마님 자손 아님네까. 부디 재수사망 일게 하여 주십사 원정을 올리는 거우다. 무쇠솥에 화식(火食)을 먹는 인간이 무엇을 아오리까. 밥 먹으면 배부른 줄 알고 옷 입으면 등 따스운 줄이나 아는 인간이 무슨 철이 있습니까까. 과연 살려 주십서. 앉아 천리 보고 서서 만리 보는 영등 할마님, 오곡씨 미역씨 많이 주고 감사. 전복 소라 우무 청각씨 풍족히 주고 가십서. 앞바다에 가는 고기 오는 고기 흥청망청 몰아다 줍서. 말 모르고 귀먹은 금전 따라 저 멀디 먼 육지바다, 강원도로 함경도로 일본 바다 대마도로, 동경 히로시마로 물질 나간 잠녀들도 할마님이 거느려 줍서. (중략) 배 타는 자손들, 모진 풍파 막아줍서. 왜놈 머구리배 막아줍서. 왜놈 겐자꾸배도 막아줍서. 어허 바닷속 돌 끝마다 미역 천초(우무) 전복 소라 풍성하고, 조 농사 보리 농사 콩 농사에 씨를 많이 붙여 이 자손들 혼전만전 먹고 쓰고 남게 해줍서. 미역씨, 천초씨, 주고 감사. 소라 전복씨도 주고 감사. 오곡 씨앗도 주고 감사. 자, 씨 뿌리러 가자. 애 잘 낳고 물질 잘하는 상군(上軍)잠녀들 나오너라.” (7~8쪽)

이 인용문을 통해 몇 가지 잠녀들의 세계가 드러난다. 첫째, 개화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둘째, 샤머니즘의 세계 속에 갇혀 있다는 것, 셋째, 해산물을 채취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 넷째, 돈을 벌기 위해 물질하러 일본과 한반도(韓本土)로 떠난 사람도 있고, 일본의 공장에 간 사람도 있다는 것, 다섯째, 문명 이전의 원초적인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 등이다.

이것은 제주민 가운데도 기층민중의 삶이다. 이들은 자연과 벗하기도 하고, 자연과 싸우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들의 삶에 수탈과 착취가 시작된 것은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계속되면서 일제와 일제에 결탁한 자본가들이 이들의 삶에 유형무형의 수탈과 착취가 시작된다.

마을 잠녀들은 이틀 동안의 집중적인 채취작업으로 거뒀던 미역을 나흘 동안 햇볕에 착실히 말려서 조합 공판장에 내다 팔았다.

시중은 말로만 들던 잠녀 수탈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공판장에 나가보고 실감했다. 위탁판매를 맡은 조합은 이번에도 경매에 붙이지 않고 조합자인 도사가 지정한 특정 왜상인들에게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그 돈에 붙은 갓은 무명 잡세, 조합 수수료가 엄청나고 조합서기들의 농간 또한 극심했으니 (중략) 잠녀의 채취물 9할 이상이 수탈당했다.

조합 서기들은 왜놈이건 조선놈이건 간에 모두 왜 상인들과 한통속이 되어 정해진 값도 안 주려고 멀쩡한 물품을 상중하로 등급 매겨 낮게 치는가 하면 저희들 맘대로 저울눈을 속여 먹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요, 앞은뱅이 턱 차는 식의 무지막지한 강도질이었다. (74쪽)

잠녀들의 수탈 상황이다. 일제가 해녀조합을 만들어 잠녀들을 수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간부들이 일본 상인과 결탁하여 잠녀들을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은 도사(島司)인 일본인이다. 그 밑에서 일하는 서기 등은 일본인도 있고, 조선인도 있었다. 그들은 잠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마땅히 경매에 붙여 조금이라도 좋은 값에 팔도록 도와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도사는 일본 상인과 결탁하여 특정 상인에게 헐값에 팔아 버리고 있다. 교묘한 수탈이다. 게다가 불필요한 비용까지 잠녀들에게 부과시키고, 심지어는 저울눈까지 속이고 있다. 이 소설에서 잠녀들이 글을 몰라 속임을 당하는 일을 한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몰라서 속임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잠녀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을 무렵, 계급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벌여온 제주도내의 사회운동권은 잠녀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보수적이고 고립 분산적인 농민들과는 달리 잠녀들은 공동생활에 익숙하고, 군집성이 강하여 조직화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녀조합의 수탈 행위는 잠녀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때 하도리에서 감태 매입 부정 사건이 터졌다. 화약고의 원료인 감태는 하도 앞 바다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그런 감태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경쟁입

찰을 하지 않고, 조합에서 일본인 물산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매입 가격이 시세의 4할에 불과했다. 잠녀들의 경쟁입찰 요구를 무시하고 조합에서 제멋대로 매입권자를 선정하여 잠녀들의 이익을 착취한 것이다. 잠녀들이 항의하러 조합지부를 찾아 갔다가 도리어 불순분자의 선동에 넘어가 사실무근한 일을 가지고 말썽을 부리면 나중에 큰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엄포를 듣고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럴수록 잠녀들은 해녀조합을 불신하고 반대투쟁에 나서는 계기가 된다.

이럴 때 시중, 시호, 호일로 대표되는 운동권에서는 <구좌면사회운동협의회>를 조직하여 노동야학을 활발하게 벌여 나갔다. 마을별로 잠녀들을 조직하고 투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녀들 스스로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식화시킨다. 그때 불러진 노래의 메시지는 그것을 함축한다.

1. 우리는 가없는 제주도의 해녀들  
불쌍한 살림살이 세상도 안다.  
추운 날 무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2.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어린 아이 젖 먹이며 저녁 밥 짓는다.  
하루 종일 해엄치나 번 것은 기막혀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 중략 -

4. 배움 없는 우리 해녀가는 곳마다  
저놈들이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의 피와 땀을 착취하도다.  
가없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잠녀들이 자기네의 삶을 더욱 의식하고 왜 그들이 부당하게 억압받고 수탈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를 살감케 하기 위해 야학에서 학예회를 열고, 잠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처지를 발표하게 한다. 그때 잠녀인 이도아의 다음과 같

은 말은 잠녀들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동시에 투쟁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불쌍한 잠녀들은 허구헌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헐벗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본주나 조합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이 세상에 나왔수파? 그 사람들 너무 먹어 배터져 죽을 지경이고 우린 쫄쫄 굶어 뱃가죽 붙어 죽을 지경이우다. 우린 남을 위해 살아가는 공짜 인생인가 마썸? 정심이가 말한 대로 우린 단결해서 합네다. 단결만이 우리의 힘이우다. 우리 같은 약자들은 단결 안 하면 못살아 마썸. 다들 들어서 알고 있을 테주만 저번 우리가 울산에서 전주와 싸워 이긴 것도 일심으로 단결한 때문이우다. 여러 말할 것 없수다. 우릴 제일 괴롭히는 것이 뭐우파? 우리 잠녀들을 이익되게 합네 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억누르고 속이고 빼앗는 단체가 대관절 뭐우파? 어디 말들 해봅서!”

도아가 격정에 못이기는 듯 떨면서 주먹 권 손으로 제 가슴을 탕 치자, “해녀조합”이라고 응답하는 청중들의 목소리가 빗발치듯 쏟아졌다.

“맞수다. 우리는 해녀조합의 착취 아래 눈물로 세월을 보냈수다. 대관절 우리가 언제까지 말 못하는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하면서 살아갈 거우파? 나쁜 것은 나쁘다고 큰 소리로 말해서 합네다. 이젠 더 참을 수가 없수다. 우리 모두 단결해서 조합을 반대해서 합네다. 조합의 나쁜 점은 고쳐사 합네다!” (344~345쪽)

사회운동권이나 잠녀들이나 잠녀들을 수탈하는 해녀조합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하려는 데서부터 이 투쟁은 시작된다. 그런데 그것은 해녀조합지부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도사가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본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조합장인 일본인 도사가 신년맞이 도일주 순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사가 세화를 통과할 때 시위하기로 하고 그날을 기다렸다가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다. 일제 관헌과 잠녀를 중심으로 한 도민과 충돌한 것이다. 이 시위에는 장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세화하도는 물론 종달, 연평, 시흥, 오조 등 제주의 동부 마을 잠녀들이 참여했다. 이 운동은 3개월에 걸쳐 이어졌으며, 이 운동과 관련해서 조합비 불납운동을

벌이던 청년동맹 핵심 인사들과 잠녀 대표들이 잡혀 들어갔다.

이 잠녀투쟁은 잠녀들이 앞장을 서기는 했으나 그 배경에는 사회운동권이 있었다. 잠녀들을 의식화시키고, 그들을 투쟁으로 나아가게 한 것도 이들이다. 잠녀들의 경우는 항일보다 생존권이 앞서고, 사회운동권은 항일의 성격이 강하다.

이 소설에서 현기영은 잠녀와 사회운동권인 지식인들의 활동상을 그리고 있다. 여욱으로 대표되는 잠녀, 시중으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이 일제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증언한 소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조합의 직접 피해자인 잠녀들이다. 그들이 왜 투쟁을 벌였는가는 기본적으로 생존의 위협 때문이다. 그들은 해산물을 직접 채취하고는 있지만 조합과 상인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나면 남은 게 별로 없었다. 당연히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투쟁을 벌인 것이다. 지식인들은 그들의 가족 가운데 잠녀가 있었기 때문에 잠녀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잠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들은 항일투쟁의 방편으로 잠녀들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 잠녀투쟁과 1930년 전후의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이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현재로서 판단하기에 이르다. 짐작컨대 현기영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역사 연구 논문을 크게 참고했다기보다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청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지면 밝혀지겠지만 큰 흐름은 이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이 방면의 기록을 읽으면서 갖게 된다.

#### 4. 민중주의와 반외세주의

제주도 민란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형의 하나가

1862년(철종 13년)에 일어난 임술제주민란이라고 생각된다. 이 난은 (1)불합리한 조세 구조에 편승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너른 들판에 말을 가득 키우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제주도의 토호층, (2)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제주도민이 어렵게 채취하고 생산해 낸 특산물의 상품화 과정을 독점하는 선상(船商)과 포구 주인, (3)중앙권력층의 도장이 찍힌 문서 하나 들고 와 제주도민의 생계 수단인 갓양태 제작의 원료를 बे가려는 외지인, (4)목사 수령 관속배 향임배 등 토호, 상인, 외지인, 관리 등 힘을 가진 자들의 수탈에 견디다 못해 일어난 농민들의 난이다.<sup>8)</sup>

이 난이 일어난 중심부에 대정현의 화전민들이 있다. 화전민들은 자기의 농토가 없어 잡초지에 불을 놓아 경작하는 농민 가운데도 가장 빈곤한 계층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혹한 징세가 부과되자 농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일종의 생존권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민란은 불합리한 조세, 권력과 결탁한 외부 세력, 관권의 남용 등 세가지 요소가 기층민중인 농어민을 수탈했는데, 이에 대한 항쟁이 민란으로 번지고 있다. 불합리한 조세나 관권의 남정은 다른 지방에도 있었다. 제주 민란의 특징은 권력과 결탁한 외부세력과 제주민과의 충돌이 첨가된다는 데 있다.

이재수란의 경우는 그것이 천주교도들이고, 잠녀 투쟁의 경우는 조합 상층부에 있는 일체다. 따라서 기층민중의 눈에 외부 세력은 부정적으로 각인된다. 기층민중을 옹호하는 입장에 선 것이 현기영이다. 그의 소설을 읽으면 강한 민중주의, 반외세주의적 관점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이 두 편의 장편소설에서 방성칠란, 이재수란, 잠녀투쟁 등 민중의 반항을 취급했다. 그 민중도 더 분석하면 대정의 화전민과 구좌의 잠녀다. 그들의 공통점은 교육에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빈궁층에 속한다. 조선시대의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상민계급에 가깝고, 마르크스의 관점에서는 프롤레타리아다. 이 계급은 안으로 늘 폭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들이 평소에 지녔던 억울함을 밖으로 분출시

8) 권인혁, "근세사후기", 『제주도지』제1권(1993.2), 985-988쪽.

킨다. 그런 계기는 대개 외부에서 온다. 그것이 방성칠란의 경우는 방성칠 등이질 세력이고, 이재수란의 경우는 채구석을 중심으로 한 상무사원들이며, 잠너투쟁의 경우는 제주도내의 사회운동 세력이다.

E.M.포스터는 소설은 증거에다 X를 더하거나 뺀 것이란 의미의 말을 한 일이 있다. 제주의 역사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제주 역사를 소재로 소설을 쓸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 역사 연구가 미흡한 상태다. 그만큼 작가는 어려운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썼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증거, 곧 잘못 안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을 쓰는 것은 그만큼 모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X가 될 수 있는 작가의 상상력과 역사 해석은 작가의 몫이다. 여기에 작가의 관점과 개성이 드러난다. 현기영은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는데 있어서 민중적이고, 반외세적이다. 이런 관점은 그의 다른 소설 「소드방놀이」(1976)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시대에 제주 역사를 소재로 작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중이 아닌, 한 시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집단을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방성칠란이나 이재수란에 조천을 중심으로 한 제주의 양반 계층은 왜 대정의 양반 계층과 협력하지 않았는가. 이런 양반 계층과 화전민이나 농어민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행동했는가. 잠너투쟁의 경우에도 그들을 부추기고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한 사회운동세력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떠했는가를 점검하면 해방 후의 4·3사건의 성격까지도 밝혀질지 모른다.

20세기 초의 이재수란의 경우는 당시의 천주교도들의 실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역사의 변동기에 외래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세력은 그 시대에 소외세력인 경우가 많다. 기독교가 유입될 때 소외세력이었던 남인들과 관서 지방 사람들 가운데 신자가 많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제주의 경우에도 신자들 대다수는 신분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그 시대에 소외된 계층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같은 계층끼리 피를 흘리면서 싸운 것이 아닐까. 다만 이들의 뒤에 포교에 앞장선 신부들이 있었고,



토호를 중심으로 한 대정의 상무사가 있었다는 것이 다르다. 결국 제주의 민중은 두 세력의 희생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가설이 사실에 가깝다면 새로운 소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두 소설이 크게 기여한 점은 역사에서 제거해 버린 사실을 소설을 통해 형상화시켜 전국의 독자들에게 알렸다는 점일 것이다. 이 두 소설들이 아니었다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독자들이 제주에 그런 민란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제주 역사 연구에 가속도가 붙은 것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